

영광군, 빈집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활용방안 ‘모색’

관내 전체 빈집 943호 철거 후 조치방안 제시

영광군이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영광군 전체 빈집 조사결과 943호로 확인됐으며 빈집 주변 연계 환경, 교통상태 등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8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미관저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 전체 빈집은 943호로 조사됐다.

상태가 양호한 1등급 빈집이 253호(26%), 보수가 필요한 2등급 빈집이 621호(66%),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안전조치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69호(7%)로 확인됐다.

용역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1~2등급 빈집의 교통망, 주변의 거점시설을 조사해 활용 방안 및 시행 방법을 제시했으며



영광군이 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철거형 빈집의 경우 안전조치 방안 및 철거 후 조치방안을 제시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제안했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성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천연염색 페스타 개최 나주천연염색재단, 17~19일

(재)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일원에서 ‘2024 천연염색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천연염색 페스타는 ‘영산강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천연염색 관련 전시, 교육과 체험, 플루마켓,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 로컬100’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면서 시민과 관광객, 천연염색 애호가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천연염색 페스타를 알리기 위한 전시전 ‘블루리버’가 박물관 기획전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17일부터는 전국천연염색지도사협회 회원들의 특별 전시작품을 박물관 야외 공간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천연염색 즐기기 기법’ 교육과 더불어 ‘미니곰 쪽염색’, ‘전사 머그컵’, ‘알록달록 색칠놀이’, ‘바이페인팅’, ‘네일아트’, ‘손 마사지’ 등 관람객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여기에 지역 공예인의 공예품을 구매, 체험할 수 있는 ‘플루마켓’과 천연염색지도사협회 토크쇼, 지역 뮤지션 자선 공연, 노래자랑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나주=조대봉 기자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대상자 화순군, 내달까지 추가 모집

화순군은 13일부터 6월30일까지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전남도내 거주하는 청년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복지비 연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5월13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19~28세 청년(1996년~2005년 출생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신청자 중 거주기준 부적합으로 제외된 경우에도 이번 추가접수로 인해 거주기준에 적합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카드)를 소지한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지급 대상자, 전남도 여성농어업인 배우처 대상자는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는 문화누리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12만원만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추가모집으로 인한 확정 대상자는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8월 중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문화복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https://www.hwasu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화순군청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379-3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김선중 기자

함평군 손불면 복지기동대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봉사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7일 생활환경이 어려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환경정비 및 필수 생필품을 지원했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 협력 봉사대로, 올해에도 치매 걸린 부인을 간병 중인 노인 세대, 장애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 거동이 불편한 독거세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청소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과 이웃사랑 봉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조성봉 복지기동대장은 “모든 면민이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지난 7일 함평군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환경정비를 펼쳤다.

함평군 제공

담양 친환경 쌀, 서울 성동구 학교 급식 오른다

내달부터 ‘대숲맑은 담양 쌀’ 2년간 61개 초·중·고교에 공급

담양군은 친환경 ‘대숲맑은 담양 쌀’이 서울시 성동구 학교급식으로 선정돼 6월부터 2년간 61개 초·중·고에 공급된다고 8일 밝혔다.

성동구는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구내 초·중·고 61개교에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류 심사, 현장 평가 및

밥맛 품평회 등 3차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했다.

담양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600여 톤의 쌀을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서울시 11개 자치구와 제주도 등에 학교급식 쌀로 선정돼 120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담양 쌀은 대한민국 명품쌀 대상 및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8회 대상, 5회 최우수상 등 13년 연속 수상한

자타공인 명품 쌀로 담양 8개 농협이 공동 출자해 운영하는 담양군통합RPC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병노 군수는 “대숲맑은 생애도시 담양군 청정 자연과 영산강 시원의 깨끗한 수질은 친환경농업 최대 자원이다”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화순군, 이달말까지

화순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 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 대상자를 상대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합동 신고 창구를 5월 한 달간 운영하기로 했다.

합동 신고 창구는 화순군 민원인접객실(여미원)에서 운영하며 27일부터 31일까지 광주세무서 직원과 합동으로 집중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는 소규모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 받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9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 자체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하여야 한다.

화순=김선중 기자

곡성군, 제6회 조태일문학상 공모... 상금 2000만원

곡성 출신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것은 물론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과를 보여준 시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6회 조태일문학상이 여섯 번째 수상자를 찾는다.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무)와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장비, 문학들이 후원하는 ‘제6회 조태일문학상’ 접수 기간은 6월30일까지 2개월간이다.

최근 2년 이내(2022년 6월 1일 이후)에 발간한 시집을 시인 본인이 제출하거나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곡성 조태일시문

학기념관에서 펼쳐질 조태일 시인 25주기 문학 축전에서 열리며 상금은 2000만원이다.

조태일문학상은 어두운 현실에 온몸으로 맞선 저항 시인이자 자연을 아름답게 노래한 순정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죽형(竹兄) 조태일(1941~1999)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됐다

올해는 조태일 시인 25주기가 되는 해여서 더욱 관심을 끈다. 조 시인이 1969년 창간했으나 당국의 압력으로 1년 만에 폐간된 ‘시인’지가 복간되고 추모모집 발간, 가거도 기행 등 25주기를 기리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접수는 광주시 북구 북문대로 60 광주예술의전당 별관 1층 광주전남작가회의

내 제6회 조태일문학상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공모 요강은 곡성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이메일 guktoepoet@naver.com으로 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문학상을 통해 우리 시문학사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 온 조태일 시인을 조명하고 새로운 시의 지평을 열며 시적 성과를 이룬 시인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한국문학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